1.탄소중립개념

탄소중립(Carbon Neutrality)은 \*\*사람이 배출한 이산화탄소(CO₂) 등의 온실가스를 흡수하거나 줄이는 방법으로 ‘총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’\*\*을 말합니다.

예를 들어 나무를 심거나,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거나,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배출한 만큼 다시 흡수하거나 상쇄해서 지구의 온실가스 농도를 더 이상 늘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.

즉, 탄소중립은 \*\*“배출도 줄이고, 흡수도 늘려서, 지구를 지키는 균형 잡기”\*\*라고 볼 수 있습니다.

2 산림과 탄소저장

산림은 탄소를 저장하는 자연의 저장고입니다. 나무는 광합성을 하면서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(CO₂)를 흡수해 몸속에 탄소 형태로 저장합니다.

즉, 나무가 자라면 자랄수록 더 많은 탄소를 저장하고, 목재 제품으로 사용되면 그 탄소는 계속 저장된 채 유지됩니다. 그래서 산림을 보호하고 국산 목재를 활용하는 것이 탄소중립에 큰 도움이 됩니다.

3.국산목과 수입목의 차이

✅ 국산목 (국내산 나무)

수송 거리 짧음 → 탄소배출 적음

우리 산림의 순환에 도움 → 숲을 건강하게 유지

지역 경제 활성화 → 국내 임업 지원

신선하고 환경정보 추적이 쉬움 (산지 확인 가능)

❌ 수입목 (해외산 나무)

장거리 운송 → 많은 탄소배출

산림 파괴 및 불법벌채 우려 있는 경우도 있음

환경 관리 기준이 국가마다 다름

지역 경제에 기여하지 않음

�� 결론: 국산목은 환경 보호, 탄소중립, 지역 순환경제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.

4목제 제품의 탄소저장 효과 설명

�� 나무는 자라는 동안 공기 중 이산화탄소(CO₂)를 흡수하여 그 안에 탄소 형태로 저장합니다.

�� 이렇게 자란 나무로 만든 책상, 도마, 가구 등 목재 제품에는 그 탄소가 계속 보존됩니다.

즉, \*\*목재 제품은 '이동하는 탄소 저장고'\*\*가 되는 셈이죠.

�� 나무를 태우거나 썩히면 CO₂가 다시 배출되지만, 제품으로 오래 사용하면 탄소가 공기 중으로 나오지 않게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.

✅ 요약:

목재 제품을 오래 사용할수록 → 더 오랫동안 탄소를 저장 → 탄소중립에 기여!